

작품인생 (왕하 20:1-10)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린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한다. 그리고 복음은 아무것도 거칠것이 없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복음이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시대적으로 부르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시대적 부르심을 받은지 아니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시대적인 복음이기 때문이다. 교회사 전체를 봐도 복음이 이렇게 설명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부를 때 복음으로 부르다. 그리고 자기가 시키실 일을 위하여 종에게 주시는 것도 항상 복음이다. 그러면 그 종은 이 복음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복음 하나로 시대를 살리는 것이다. 성경에 놀라운 기록들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 하나 누렸는데,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다. 시대를 살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게 복음 하나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예사로 한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갔다. 그리고 그 시대에 표적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다. 노아는 전세계를 정복했다. 그 시대의 당대요 표적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시대적 인물이다.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노예였던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전부다 역전시켰다. 그 당시 최고로 큰 나라가 이집트였다. 그 나라의 역사를 다시 썼다. 만일 요셉이 없었으면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겠나? 다니엘도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바벨론이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왕을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를 주도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바울은 세계사의 터닝포인트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사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이다. 물론 이유는 복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의 내용도 복음이었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방법도 복음이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역사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다. 복음 안에는 축복이 있다. 인간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약속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행보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정리하고 보니 너무나 선명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하는 것은 선명하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책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가 선명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답도 나왔다.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답 내고 결단하기 바란다.

1. 작품인생

오늘 말씀은 전에 본대로 승리하고 정복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이 당신 죽을 것이니 집안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한다. 그것이 3절에 나온다.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고 나중에 보면 병도 고쳐주고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셨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너의 날에 15년 더하고 앗수르의 손에서 너와 너의 성을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다윗을 위하여. 생명만 연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이 성을 앗수르로부터 지키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 더 붙였는데, 그 이유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였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에 진실하고 전심이었었던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이 성을 지키겠다고 약속도 해주셨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눈 여겨 볼것이 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다. 지난번에 히스기야가 언약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설명할때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하였다. 진실이나 정직이나 같은 말이다. 정말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일

심, 전심, 지속,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이다. 가장 급할 때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가장 큰 언약이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소원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내 온 마음을 쏟았다고 말할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수 있는 무기였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전심을 쏟은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내용이다. 위기가 왔을 때, 응답이 안될 때, 하나님 저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라고 말할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나는 히스기야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음 같이 예배드릴때에는 아주 어려웠다. 믿는 사람이 어렵다는 것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되어지면 그때 어렵다. 기도한 것이 응답되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왜 응답을 안하시는지 이유도 모르고 말씀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리고 문제는 계속 진행되었다. 그때 하나님앞에 한 말이다. 제가 히스기야만큼은 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했어요. 그때 떠오르게 뉘냐면 오후에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캠프한게 떠올랐다. 누구나 힘들다. 주일날 제일 힘든 사람이 나다. 어찌되었던 떠올랐다. 그리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목사 별로 없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진실하고 전심으로 정직하게 이 언약을 행한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진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이 정도의 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다.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당신이 삼일만에 나와서 성전 올라갈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하였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온다. 그 당시에는 해시계를 썼다. 간단한 원리를 보면 막대기를 박아 놓고 해가 움직이는것에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는데, 10절에 보면 이 해시계에 대해서 이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건지 뒤로 물러가게 할건지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니까 지구가 거꾸로 돈다는 것이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여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구를 거꾸로 돌려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할 사건을 내어 놓은 것이다. 비슷한 일이 여호수아에도 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있는데, 그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전쟁을 할때의 일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가 1960년대에 인공위성을 쏘게 되었을 때,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지구와 달의 10만년치의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을 추적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어느날 멈추어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지구의 역사에서 하루가 실종이 된 것이었다. 지구의 역사는 지구가 돌아간 역사인 것이다. 하루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지구가 하루는 안 돌아가고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사무실의 타이핑하는 직원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성경에 어디 보면 해가 하루 종일 머물렀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이 추적을 해 보니 23시간 20분은 찾았다고 한다. 하루가 실종되었는데, 23시간 20분이니 40분이 더 남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더 찾다가 오늘 이 장면이 나온 것이다.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다. 해시계가 한바퀴를 돌면 360도이다. 1440을 360으로 나누면 4가 나온다. 즉 1도에 4분이다. 그런데 10도니까 40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지구의 하루를 찾았다고 한다. 과학적 계산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기도 해야 한다. 하나님은 과학적이고 과학 이상이다.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그래서 과학적일 뿐 아니라 과학 이상인 그 분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도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공상소설이 안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의 보혈은 뱀의 머리를 깬다. 이것은 땅에 박힌 사실이다. 그 언약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지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이 땅에 박힌 사실이 되어야지 공중에 뜬 소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약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세상 살리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 안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하늘과 땅의 숨겨진 일을 고치는데에 여호수아와 히스기야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틀린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동원하신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히스기야를 위하여 우주를 동원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능히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과학자들에게 알리고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 우주를 살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참 의미있는 메시지였다. 여호수아와 히스기야는 정직하고 진심이었던 사람이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앗수르에게 정복을 다 당했다. 그러나 유다만 이겼다. 당시 다른 나라들이 볼때에는 기적인 것이다. 그러나 언약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게는 당연한 일에 불과하다. 그 어떤 나라에도 당해본 적 없는 앗수르였지만 히스기야에게는 그 왕도 죽임을 당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앗수르 왕을 탈굴 하나 못 건드렸다. 그것도 싸우지도 않고 손도 안대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다 죽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언약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전심해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 있는 언약이다. 증거 있다. 그러면 나도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된대로 나도 해주겠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러 가는 길에 반도 지나기 전에 응답은 것이다. 니가 살고 있는 동네, 너 선지자가 반도 지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히스기야가 벽을 마주보고 통곡할 때, 길게도 안했다. 그 성읍을 반도 지나기 전에 응답 왔다. 이유는 히스기야가 언약에 정직하고 오직이었고 전심이었기 때문이다. 너도 그렇게 하라. 너의 인생을 위하여 내가 우주를 동원할 것이다. 너의 선지자가 너의 동네를 반도 지나기 전에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시대적인 복음을 받았다. 언약으로 잡은 자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게 되어 있다. 진짜냐? 진실하냐는 말이다. 너는 너의 생각이 지고 이 언약을 재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냐? 그리고 그렇게 알고 믿고만 있는게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를 다 드렸냐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다. 생각해봐야 한다. 결심으로는 안된다. 이를 악물고 결심해야 하루 넘기기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경험을 말하면, 그게 들어와서 내게 자리를 잡아야 하고 움직이지 않고 들어와 있어야 한다. 어디서 가져와 놓는게 아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깊어진다. 믿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어느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 그 때부터 하나님이 전과는 다른 뭔가를 심는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전에 히스기야에게 심은 것은 그것을 내게 심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넣는게 아니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해야 한다. 내것을 하고 싶다. 전부다. 그것은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다. 인간은 전부다 그렇다. 내 때에 다 받고 싶다. 알고 보면 틀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것이 내게도 가장 좋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이 답을 줬다. 그게 그리스도이고 보혈이고 십자가의 권세 능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끝이고 복음은 거칠것이 없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단지 이것을 안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결심해서 되는게 아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2. 언약

언약은 우리 생명이다. 모든 것은 정복이다. 당연한 것이다. 정복 안되는 것은 없다. 이 언약은 못 박혀 죽음으로 피흘려 이룬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저주에 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다.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단계의 복음이 3칙이다. 삼칙이 뭐가? 니가 이 언약, 내 피를 언약으로 잡으면 너는 무조건 저주에서 해방이다. 니가 내 피를 언약으로 잡으면 너의 저주의 머리를 깨버리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뱀의 머리는 깨지게 되어있다. 니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니가 사단에게 지는 법은 없다.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저주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불신앙할 수 있다. 아무리 큰 불신앙해도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법은 없다. 언약 잡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노력할 필요도 없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언약 잡고 있는데 이긴다는 것이다. 놀랄 필요 없다. 여하튼 언약을 잡으라. 승리를 선포하고 영적 승리를 항상 가슴에 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비웃는다. 앗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큰소리 치는 것을 비웃었을 것이다. 결론은 자기가 죽는 것이었다.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았다. 니가 너의 마음에 계속 이 언약의 비밀, 영적으로 심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미 주었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선지자이다. 뱀의 머리를 깬 약속의 피로 하나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선지자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원하는 것에 너의 인생을 드려라. 그러면 니가 인생을 정복할 것이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누린 사람이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전심으로. 니가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에도 이 우주를 동원할 것이다. 히스기야처럼. 너는 하늘과 땅을 대단하게 보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모든 나라가 다 노예가 된 앗수르를 정복했다. 히스기야만 유일하게 해방을 누렸다. 앗수르에 비하면 공알만한 나라가 싸우지도 않고 정복해 버렸다. 오직 언약과 기도와 그 언약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소원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그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봤을 것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망대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유일한 안테나였을 것이다. 미국 남미에서 안테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히스기야에게 증거를 안주고 응답만 해주도 할렐루야다.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구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이정도면 인생 작품 아니겠는가? 하늘과 땅이 그에게 맞춰져있었다는 것이다.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절했다. 니가 하늘과 땅을 정복할것이라고 약속 준 것이다. 니가 우주를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14년간 하늘과 땅의 비밀을 요셉 혼자 누렸다.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인 것이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속히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미 요셉과 히스기야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 위에 있다. 약속의 피 속에서 우주가 나왔다. 하늘과 땅,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미국 아무것도 아니다. 언약을 잡은 우리 한 사람은 미국보다 더 크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다. 하늘과 땅을 정복한 사람들,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복음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것이다. 시대적인 작품이 나왔다. 어려운 분들 많이 있을 것이다. 나도 있었다. 답이 뭐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답으로 잡는가? 안그러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만 하는가? 목상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돈키호테처럼 그런게 아니다. 생각을 해보라. 그리고 진짜 마음속에 답으로 잡아라.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라. 지속하고 있으면 히스기야 같은 응답이 올 것이다. 나의 선지자가 내가 사는 동네를 반도 지나가기 전에 응답이 온다. 내가 진짜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진실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움직인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원리도 변하지 않고 약속도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 그리스도 약속의 피이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그래서 정말로 작품 인생, 그냥 살다가 믿다가 천국가는게 아니라 작품되기 바란다.